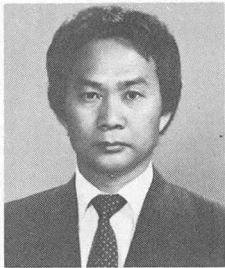


## 양돈경영의 새로운 방향과 사양체제



정 찬 길  
(농업경제학 박사, 건국대  
축산경영학과 교수)

### 1. 새로운 양돈경영의 방향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은 소수 양돈농가에 의한 다두사육(多頭飼育) 현상이 1960년 이래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1962년에 1백 22만 4천 농가에 의하여 1백 69만두가 사육되어 호당평균 1.35두이던 것이, 1987년에는 30만 2천 농가에 의하여 4백 28만 1천두가 사육되어 호당평균 14.13두로 지난 1/4세기 동안에 호당평균 사육두수가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잘 입증된다. 이는 양돈산업의 경영형태가 부업에서 전업내지는 기업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호당 1천두 이상을 사육하는 기업적 양돈경영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양돈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서 과학화가 필요하며, 기업화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이윤추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돈경영자는 우수한 사양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사양기술과 경영능력을 함께 배양하는 것이 보기에는 매우 쉬우나 갖추기에는 간단하지 않다. 그러므로 한 우수한 사양기술자라도 경영을 잘 하는 경영자로 볼 수는 없다. 이 두가지면을 비교할 때 전·기업적 양돈산업에서 경영을 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아물든 합리적 양돈경영이란 다음 네가지 조건을 균형있게 잘 조화함으로써 경영의 최고 효과를 이룩할 수 있다.

1)개량품종 : 경제능력이 높고 상품가치가 높은 돈종이어야 한다.

2)주증사료 : 사료는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양호한 것을 선택·이용하여야 한다.

3)질병방지 :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4)기술관리 : 높은 사양기술과 철저한 경영능력을 적용해야 한다.

이상 네가지 조건은 한 집의 네개의 기둥과도

같고 자동차의 네 바퀴와도 같다.

양돈경영에 있어서 이 네쪽의 기둥이나 자동차의 바퀴중 만일 한개 혹은 두개가 빠지면 집이 무너지거나 자동차가 구를 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경영자체가 부실해지거나 장애에 부딪칠 것이다. 이 네 쪽의 기둥이 균형있게 버틸 수 있는 것은 경영자의 능력과 정신력에 달려있다.

양돈경영이란 생산·판매·관리의 세가지 조건하에서 형평적으로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관리의 제일 중요한 것은 경영기록을 컴퓨터(Computer)등을 이용하여 자료를 과학적으로 관리하여 양돈경영을 쉽게하여야 한다. 과거 대부분의 양돈장들은 기록이 없이 차후 자기 농장에 대한 경영계획과 관리를 위해 참고 자료가 필요없는 것처럼 해왔다. 한편, 생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노동과 사료를 효율적으로 조화시켜야 한다. 특히, 경영수입은 시장출하가격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능한 관리인을 두고 꾸준히 시장조사를 실시하며, 민첩한 전환시기를 맞추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따라서, 양돈장은 능력있는 전문경영인재로 하여금 관리토록 해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돈산업의 전·기업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돈의 사양관리의 기술인재는 급속히 증가되어 왔으나, 면밀한 판단력과 고도 기술을 갖춘 경영인재가 크게 부족함은 물론, 경영주측에서 이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대학에서 양성되어 배출되고 있는 미래의 전문축산 경영인재들이 적재적소에 활용되지 못하여 자원의 손실이 큰 실정이다.

## 2. 양돈경영의 “삼삼삼(3-3-3)” 사양체제

양돈경영은 경영방법을 확립한 후 사양방법에 관한 체제를 필히 결정해야 한다. 어떠한 사양체

제를 채택해야 많은 돈을 벌 수 있는가는 경영자의 최대 관심사이다. 여기에 하나의 사양체제로 3-3-3체제를 예시한다.

3-3-3사양체제란 자돈 출생후 30일경에 이유시키고 특수사양방법으로 30일간 육성하여 자돈의 체중을 20~30kg까지 올린다. 그러다음 3개월간 비육함에 따라 90kg까지 증체하여 출하하는 경영방법을 말한다.

만일 버크셔종(Berkshire)이나 요크셔종(Yorkshire) 등 중형돈에 사양체제를 적용할 경우 3-3-5사양체제를 선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품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3개월에 90kg까지 비육하여 출하하기 어렵고 5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랜드레이스종(Landrace)의 1대 교잡종 F<sub>1</sub>에 이 사양체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3-3-4사양체제를 채택해야 한다. 실제 많은 전업양돈가들은 비육양돈을 전문으로 할 경우 이 3-3-4사양체제를 널리 활용하고 있다. 그 밖에 대요크셔종 등 대형종과 햄프셔종의 1대 교잡종에 3-3-3사양체제를 적용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랜드레스종, 대요크셔종 등 대형돈의 자돈을 출생후 30일령에 이유하는 것은 번식돈 사양의 기초상식으로 되어있다. 이유후 30일간에 자돈의 체중을 25~30kg까지 올리는 사양은 특수한 사양기술이 필요하겠지만, 인공유의 많은 보급으로 이 수준의 증체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자돈의 출생후 60일 동안에 25~30kg까지 무난히 사육할 경우 3개월 동안에 90kg까지 증체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디에다 중점을 두어야 하나 하면 품종 개량적 우량한 자돈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5개월에 한번씩 유리한 경영을 할 수 있다. 양돈경영에서 자금의 회전율은 매우 중요한 경영요소이다. 요크셔종과 버크셔종을 비육하는 전업적 양돈경영에 있어서는 자

금회전이 1년에 2~2.2회이다. 그러나 렌드레이스 종과 3품교잡종에 특수사양체제를 보급함으로써 1년에 자금회전을 3번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3-3-3사양체제의 목표를 달성하면 1년에 4번 자금회전이 가능하며, 연간 4회의 자금회전이야말로 양돈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 줄 것이다.

양돈의 번식경영에 있어서는 1년에 최소한 두 번을 목표로 해야하고, 또한 1년에 2.5회전(2년에 5차 회전) 이상을 장래 목표로 삼아야 한다.

다음 「그림」을 통해서 자돈의 자질에 따른 사양기술의 차이로 발육상태를 살펴볼 수 있다. 이는 급여사료의 질(H: 영양가 높은 사료, L: 영양가 낮은 사료)에 따라 비육일령별 체중이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①의 HH곡선은 시장의 배합사료를 지속적으로 급여하는 단기비육을 목표로 하는 단기사양법이다.

②의 HL곡선은 경제적 비육법으로 건설한 사양법이다.

③의 LH곡선은 비경제적 비육법으로 관망적 사육법이다.

④의 LL곡선은 완만사양법이다.

① 곡선의 첨자는 사료요구율이다.

앞으로 양돈경영의 목표를 ② 곡선의 HL곡선으로 설정해야 하며, 90일 비육사양법이 통할 수 있는 LH(렌드레이스종×햄프셔종), LW(렌드레이스종×대요크셔종) 등의 품종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년에 1.5-1.7회전하는 번식경영자가 허다하므로 이들의 경영개선 지도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장래의 양돈 경영목표를 필히 「그림」에서와 같이 설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만일 20kg 정도의 육용자돈을 가지고 비육할 경우 사양기술과 자돈의 능력 때문에 「그림」에서와 같이 여러가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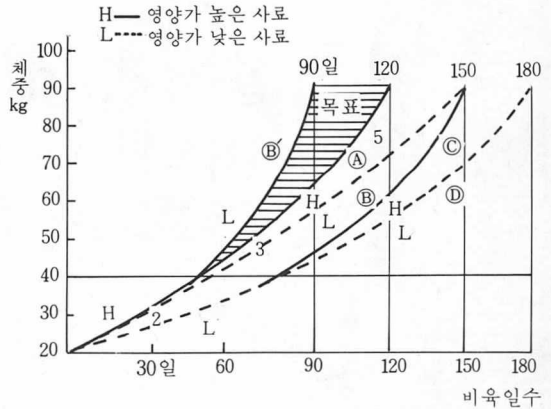


그림 : 자돈의 자질과 사양기술에 따른 발육상태

체중을 40kg 정도까지 증체하였을 때 ① ② ③ ④ 곡선 4가지의 선택적 사양방법이 있다. 그러나 부업양돈경영이나 초기전업경영이 아닌 경우에는 ① 곡선의 단기비육사양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양돈경영의 경영·경제적 가치의 측면에서 볼 때 ② 곡선의 비육사양목표를 채택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근래 고도의 기업화나 자유경쟁이 치열해진 양돈산업의 여건하에서 전양돈농가가 ② 점선을 경영목표로 설정할 경우 낙오자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② 사선부문을 비육양돈 경영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② 사선부문을 경영목표로 설정할 경우 다음 두 가지 조건을 구비하여 조화시켜야 한다.

첫째, 자돈체중이 40kg 정도에 이르면 가격이 저렴한 사료(전분질이 풍부한)를 급여해야 한다.

둘째, 3개월 체중이 필히 90kg이 되어야 한다. 또한 자질이 우수한 품종의 자돈이어야 한다. 그레야만 출생후 150-180일령에 체중이 90kg에 달하여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